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Housing Econom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임광빈*, 강동훈**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wang-bin Lim(sh9012@hanmail.net)*, Dong-hoon Kang(crosskd@kohi.or.kr)**

요약

본 연구는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복지패널 1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주택가격, 가구원당 주거면적 및 총생활비대비 광열수도비 비중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의 지역적 특성인 거주 지역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거의 지역적 특성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 등과 관련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서도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 빈곤 및 주거불평등 등으로 인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적인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삶의 만족도 | 자아존중감 | 심리적 복지감 | 주거의 경제적 특성 및 지역적 특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housing econom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the self-esteem of the elderly and how their self-esteem mediates the effects of housing econom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using 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housing prices, occupancy area per resident, and ratio of utility cost to total living cos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the elderly's self-esteem mediated the effect of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hous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Second, residential area, a regional characteristic of hous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the elderly, and the self-esteem of the elderly mediated the effect of the residential area on the life satisfaction. Thus, because elderly housing welfare policies related to housing econom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ffect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a psychological welfare, through a mediating effect of the elderly's self-esteem.

■ keyword : | Life Satisfaction | Self-esteem | Psychological Welfare | Housing Econom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

I. 서론

한국 사회는 21세기 들어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생산·소비 및 사회적 고용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노인복지정책의 확대로 재정부담의 증가와 함께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주관적 인식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3].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추계인구는 약 69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5가구 중 1가구는 노인 가구주이며, 멀지 않은 시간에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4]. 특히,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노인독거가구가 23.3%, 노인부부가가가 44.7%, 자녀동거가가가 28.1%, 기타 노인가가가 4.0%로 노인가구의 2/3이상이 노인만으로 이루어지는 등 노인가구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5]. 노인이 겪는 여러 문제들은 인구 고령화를 이미 경험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지만[6],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 제일 높은 한국에서의 그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7].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노인의 행복감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행복한 노인과 행복하지 않은 노인의 격차도 크게 나타난다[8]. 이러한 노인의 행복감은 의식주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노년층의 경우, 주거복지는 노인복지정책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9].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경제 및 사회활동의 중단으로 소득과 활동범위가 축소되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의 증가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거 안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10][11]. 이러한 노년기의 생활에 있어서 주거환경과 관련된 주거의 특성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2]. 이와 같이 노인주거환경과 관련된 주거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 해결에도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부동산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택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주택가격과 주택규모,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유형 등 주거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은퇴 후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따른 생활비 조정과 광열수도비 등에 대한 지출구조의 변화는 에너지 빈곤 문제로 연결되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요인들 중에서 주거요인에 집중하며, 지속적인 경제적·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의 노인복지정책이 주로 최저생계비 기준의 소득지원 정책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향후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정책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노인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주택가격, 주거면적, 광열수도비의 지출비중과 주거의 지역적 특성인 거주지역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과 노인 주거환경이론

주거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주택 공간과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생활, 가족 공동생활, 사회생활을 모두 포함하는 생활의 장소를 의미한다. 전통사회에서의 주거는 가족의 거처와 재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중요시 한 반면, 현대사회의 주거는 가족휴식의 공간 기능과 자녀양육 및 교육의 기능을 중요시 하며, 편리성과 기능성 그리고 안전성을 중요시

한다[13]. 젊은 세대는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어린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원하며, 노인 세대는 연장된 수명과 함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가치 있게 영위하기 위한 주거환경을 원한다[14].

이와 관련하여, 개인-환경 합치이론(Person-Environment Congruence), 주관적 주거애착이론(Subjective Attachment to Home), 주거지역 침투성이론(Site Permeability Theory), 탈시설화와 정상화이론 등과 같은 노인주거관련 이론은 노인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이해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15]. 첫째, 개인-환경 합치이론에 따르면,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의 주거환경은 다른 세대와 달라야 하며, 노인주거환경을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는 노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하도록 개별화해야 하고,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노인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둘째, 주관적 주거애착이론은 노인이 주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주택을 선택할 때, 개인이 이웃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셋째, 주거지역 침투성이론은 주거지역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침투성이 높고, 서비스의 가용성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지지도가 높다는 이론이다. 이는 주거지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촌과 노인공동주택 등을 계획적으로 건설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탈시설화와 정상화이론은 노인을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고독감과 심리적 불안감을 줄여주고, 환경변화에 따른 긴장감과 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 보호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투자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노인을 위한 주거의 기능적 관점에서 노인주거환경이론을 살펴보다도, 주거 목적에 수반되는 다양한 주거의 특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주거는 노인들이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노인주거에 따른 주택의 점유형태와 주택유형 및 주택구조 성능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가지며,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 주거면적, 광열수도비와 같은 경제적 특성과 노인들의 주거환경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주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성 등 여러 가지의 주거특성을 지닌다.

2.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 행복감, 심리적 복지감 등의 개념과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다차원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Neugarten(1961) 등은 생활만족도는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낙관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6]. Sousa와 Lyubomirsky (2001)는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한 만족과 수용의 의미로써 인간 전체의 삶을 위한 필요와 욕구의 충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1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주택 가격과 주거면적, 광열수도비와 지역적 특성인 거주지역은 삶의 만족도와 많은 관계가 있다. 첫째,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수급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주택 보유자와 미보유자의 자산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산효과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택가격의 변화는 주택보유자에게는 실물자산가치의 증감을 통해, 주택 미보유자에게는 금융자산가치의 변화를 통해, 상품시장에서의 소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18-21]. 즉,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보유자의 경우, 일정 부분의 자산가치 증가 효과로 소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주택미보유자와 큰 규모의 주택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여타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산은 경제적 안정을 향상시킴으로써 갑작스러운 소득손실을 경험하게 될 때, 개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자산 축적은 삶의 만족감과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다[22]. 둘째,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가구원 수에 따른 적절한 주거면적의 사용은 주거의 쾌적성, 편리성, 기능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 최근의 다양한 가구형태 변화에 따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가구형태별로 가구원 수에 따른 적절한 주거면적 기준의 설정과 세분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23]. 셋째, 광열수도비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들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광열수도비의 과부담 혹은 낮은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정냉·난방수준에 미달할 경우, 이는 노인가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노인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에너지효율성의 저하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문제점은 노인주거복지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24]. 끝으로, 주거의 지역적 특성인 거주지역은 노인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만큼, 지역사회 환경요인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25],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역에 따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26].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화와 사회활동의 중단으로 인해 활동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데, 이는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10]. 이처럼 노인의 경우, 생활이 점점 가정 중심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1]. 또한 주거환경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아파트 및 자기 집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거주주택 면적이 넓고,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전용침실이 있는 노인,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내에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없는 노인이 다른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27].

3.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생활만족도 및 행복감과 함께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존재와 본질을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8]. Maslow(1970)는 자기확신, 자기가치감, 자기인정감과 자기타당성 등으로 구성되는 자아존중감 욕구를 인간의 5가지 욕구 중의 하나로 강조했다. 이는 스스로 쓸모 있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으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가와 인정받기를 원한다[29]. 한국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경제적 수준, 경제 활동, 건강수준 및 가구형태 등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보고한다[30-36]. 또한, 주거의 특성이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 등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국내외적으로 많이 확인된다. 주거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정신적 고통 증상은 줄어드는데, 소득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정신건강에 대한 주거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37]. 특히, 주거의 경제적 특성은 노인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38-40]. 주택점유형태와 주택규모는 자아존중감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주택가격과 난방시설 등의 주거환경변수 조정을 통해서 우울감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41]. 주거의 특성 중 주거규모의 적절성은 가구원 수에 맞춰 주거면적이 적절한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과밀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과밀한 주거여건은 개인의 삶에 긴장감과 불편함, 통제 불능감과 같은 스트레스를 주며, 좁은 공간에서의 일상생활은 가족생활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병원 등 건강관련 시설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된다[42].

주거의 경제적·지역적 특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과시적 소비의 베블런효과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베블런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면민감성은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분, 지위, 인격 혹은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에 대한 개인의 민감한 정도를 의미한다[43]. 인간은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방어하기 위해 체면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행동은 성공 여부를 물질로 과시하여 자기존재를 타인에게 인정받고자하는 자기존중 동기(self-esteem motive)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된다[44]. 차가거주자는 자가거주자에 비해 과시소비성향이 높고, 체면민감성은 자아존중감과 거주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주거면적이 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과시소비성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45].

4.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는 변인이라는 입장이 대두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자아존중감 역시 다양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46][47],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노인복지정책의 배려를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 윤명숙, 이묘숙(2012)의 선행연구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정(+),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33], 이수희(2011)는 자아존중감과 노인의 삶의 질의 관계분석에서 주거환경은 자아존중감과 정(+), 상관관계를 가지며, 자아존중감은 인지적·정서적 삶의 질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48].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6년 한국복지패널 11차 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한국복지패널은 생활만족도 척도와 함께 주택가격, 주거면적, 광열수도비 지출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변수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 조사가구원 15,989명 중에서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인 주택가격, 주거면적, 광열수도비 및 거주지역과 삶의 만족도 관련 자료인 건강만족도, 가족수입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직업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의 설문에 응답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추출하고 결측치를 제거한 결과 총 4,257명의 표본이 분석에 투입되었다.

2. 연구도구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하여,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주거의 경제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기본 개념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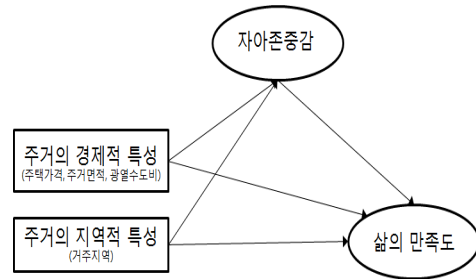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경로분석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이다. 한국복지패널자료의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에 관한 자료 중 건강만족도, 가족수입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직업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의 총합평정척도의 합산을 삶의 만족도 지표로 사용하였다. 각 평정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0=매우 불만족, 1=대체로 불만족, 2=그저 그렇다, 3=대체로 만족, 4=매우 만족)

3)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주거의 경제적 특성변수인 주택가격, 주거면적, 광열수도비와 지역적 특성변수인 거주지역이다. 먼저 주택가격은 2015년 12월 31일 현시가지 기준의 집의 가격으로 자가의 경우는 주택가격으로,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 보증부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으로 응답되었다. 주거면적은 정부의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기준과 같이 주택면적을 제공근을 취한 가구원수로 나눈 값이다. 광열수도비는 2015년 1년 동안의 월평균 값이다. 거주지역은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으로 구분하였다. 주거의 경제적 특성변수인 주택가격, 주거면적 및 광열수도비는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4) 매개변수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이다. 한국복지패널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49], 10개 문항을 4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1=다소 그렇지 않다, 2=다소 그렇

다, 3=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이 가운데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내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역코딩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내재적 자아존중감과 상대적 자아존중감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신뢰도 계수의 개선을 위해 ‘내 자신을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9개 문항의 총합평정척도를 합산한 최대값은 27로써 값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내재적 자존감 Cronbach- α =.779, 상대적 자존감 Cronbach- α =.628 로 나타났고, 전체의 Cronbach- α =.800으로 양호하였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가구형태, 건강상태, 근로여부, 가처분소득으로 구성하였다[51].

3. 분석방법

먼저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구모형의 제반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끝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해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및 확인적 요인분석과 매개효과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 및 AMO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의 분석결과

1) 인구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705	40.1
	여성	2,552	59.9
연령	60대	1,007	23.7
	70대	2,166	50.9
	80대이상	1,084	25.5
종교	있음	2,498	58.7
	없음	1,759	41.3
가구 유형	일반가구	3,111	73.1
	단독가구	1,110	26.1
	모자/부자 등	36	0.8
건강 상태	아주 안 좋음	101	2.4
	안 좋음	1,466	34.4
	보통	1,484	34.9
	좋음	1,133	26.6
	아주 좋음	73	1.7
근로 여부	근로	1,663	39.1
	비근로	2,594	60.9
거주 지역	서울시	561	13.2
	광역시	1,145	26.9
	시	1,439	33.8
	군	975	22.9
	도농복합군	137	3.2
	미취학/무학	745	17.5
교육 수준	초등학교	1,799	42.3
	중학교	783	18.4
	고등학교	670	15.7
	전문대 이상	260	6.1
가처 분소 득	1,000만원 이하	815	19.1
	1,001~3,000만원	2,342	55.0
	3,000만원 이상	1,100	25.8

2) 종속변수의 특성

종속변수인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가 가장 높고, 건강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종속변수의 특성

	평균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건강 만족도	1.81	269 (6.3%)	1,473 (34.6%)	1,334 (31.3%)	1,139 (26.8%)	42 (1.0%)
가족수입 만족도	1.89	157 (3.7%)	1,368 (32.1%)	1,563 (36.7%)	1,139 (26.8%)	30 (0.7%)
주거환경 만족도	2.66	34 (0.8%)	291 (6.8%)	919 (21.6%)	2,860 (67.2%)	153 (3.6%)
가족관계 만족도	2.81	26 (0.6%)	175 (4.1%)	695 (16.3%)	3,031 (71.2%)	330 (7.8%)
직업 만족도	2.40	47 (1.1%)	457 (10.7%)	1,614 (37.9%)	2,027 (47.6%)	112 (2.6%)
사회적친분 관계만족도	2.69	23 (0.5%)	167 (3.9%)	1,112 (26.1%)	2,742 (64.4%)	213 (5.0%)
여가생활 만족도	2.36	40 (0.9%)	535 (12.6%)	1,655 (38.9%)	1,898 (44.6%)	129 (3.0%)

2.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3]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변수와 제반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주거의 경제적 및 지역적 특성 등 변수와의 관계(**p<.01)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주택가격	주거면적	광열수도비	거주지역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가구형태	건강상태	근로여부	가처분소득
삶의 만족도	1													
자아존중감	.579**	1												
주택가격	.341**	.296**	1											
주거면적	.205**	.125**	.232**	1										
광열수도	.162**	.165**	.253**	.214**	1									
거주지역	.065**	.014**	.159**	.131**	.112**	1								
성별	.073**	.098**	.082**	.085**	.123**	.013	1							
연령	.096**	.223**	.113**	.013**	.259**	.062**	.008	1						
교육수준	.186**	.237**	.303**	.073**	.202**	.376**	.252	.1	1					
종교	.044**	.051**	.050**	.021**	.052**	.071**	.128**	.068**	.018	1				
가구형태	.139**	.174**	.318**	.456**	.309**	.017	.255**	.158**	.199**	.028	1			
건강상태	.450**	.389**	.184**	.061**	.146**	.011	.137**	.230**	.207**	.027	.117**	1		
근로여부	.181**	.227**	.024	.010	.088**	.268**	.166**	.257**	.029**	.060**	.155**	.231**	1	
소득	.081**	.053**	.093**	.045**	.199**	.012	.066**	.105**	.027**	.094**	.064**	.004	.1	1

3. 경로분석 결과

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요인분석

주거의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인 주택가격, 주거면적, 광열수도비와 거주지역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모형이 분석에 적합한지에 관한 모형평가가 필요하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2개의 하위 관측변수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잠재변수)는 7개의 하위 관측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변수에 대한 타당도

검사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표준화 계수가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성이 있었고, 표준화 계수가 모두 .5 이상이기 때문에 분석에 문제가 없었다.

표 4.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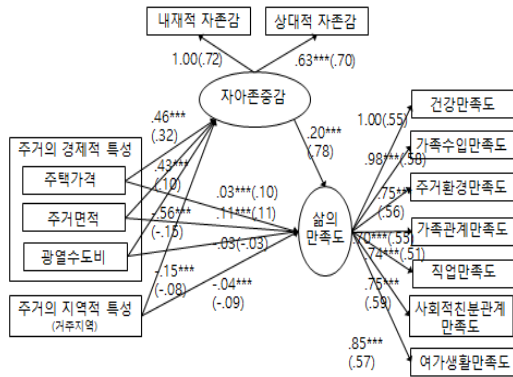
구분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내재적 자존감	1.000	-	-	.747	.479	.887
상대적 자존감	.594***	.019	31.880	.646		
건강만족도	1.000	-	-	.492	.489	.868
수입만족도	1.118***	.043	26.182	.592		
주거만족도	.797***	.033	24.497	.528		
가족만족도	.762***	.031	24.740	.536		
직업만족도	1.093***	.039	27.738	.663		
사회적만족도	.954***	.034	27.953	.673		
여가만족도	1.185***	.042	28.495	.703		

*p<.05, **p<.01, ***p<.001

또한, 평균분산분출값(AVE)은 다소 낮았으나, 개념 신뢰도(C.R.)가 .7이상이며, 판별타당성 조건도 만족하므로 타당성 검증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요인분석 후 모형의 적합도는 NFI: .966, IFI: .969, TLI: .933, CFI: .969, RMSEA: .051로서 양호하게 나타나 적합한 분석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2) 변수 간의 관계 검증

연구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총생활비대비 광열수도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는 p<.001 수준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p < .01, ***p < .001 /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그림 2. 연구모형 경로계수

각 경로계수별 세부내용은 [표 5]와 같다. 경로분석 결과, 통제변수의 영향을 통제 한 후에도 주거의 경제적 특성인 주택가격, 가구원당 주거면적, 광열수도비의 비중과 지역적 특성인 거주지역은 모두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주거특성 변수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도 광열수도비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광열수도비의 지출비중과 거주지역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양쪽 모두에 대해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열수도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의 유의성 문제를 제외하면, 주택가격이 높은 곳과 주거면적이 넓은 곳에 거주할수록, 광열수도비의 비중이 작을수록, 비도심 지역에 거주할수록,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특성 변수들 중에서 주택가격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거주지역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모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특히 높은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이 높고 낮음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의 문제 또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준화계수를 비교해볼 때, 주거의 경제적 특성

변수 중에서 주택가격과 광열수도비 변수는, 주거면적과 거주지역 변수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모두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는 다르게,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특히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반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 크기의 차이는 자아존중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매개효과로 인해서, 이들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5. 연구모형의 변수 간 경로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자아존중감-주택가격	.461***	.323	.028	16.256
자아존중감-주거면적	.434***	.102	.081	5.323
자아존중감-광열수도비	-.555***	-.153	.069	-7.990
자아존중감-거주지역	-.155***	-.080	.035	-4.390
삶만족도-자아존중감	.198***	.778	.009	22.932
삶만족도-주택가격	.035***	.096	.007	5.265
삶만족도-주거면적	.113***	.105	.018	6.339
삶만족도-광열수도비	-.029	-.032	.015	-1.915
삶만족도-거주지역	-.042***	-.086	.008	-5.512
내재적자존감-자존감	1.000	.724		
상대적자존감-자존감	.632***	.698	.019	34.035
건강만족도-삶만족도	1.000	.555		
가족수입만족도-삶만족도	.977***	.584	.037	26.543
주거환경만족도-삶만족도	.746***	.557	.033	22.800
가족관계만족도-삶만족도	.696***	.553	.031	22.310
직업만족도-삶만족도	.740***	.506	.033	22.108
사회적친분만족도-삶만족도	.746***	.594	.032	23.304
여가생활만족도-삶만족도	.848***	.567	.037	23.121

*p<.05, **p<.01, ***p<.001

4. 매개효과 분석 및 검증

주거특성 등 제반관련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분석 및 검증은 [표 6]과 같다. 연구모형의 경로분석결과에 따르면, 주거의 경제적 특성 변수인 광열수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반관련변수들은 p<.01 수준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통해서도 p<.01 수준에서 삶의

표 6.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간접효과 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구분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주택가격	가구원당 주거면적	총생활비대비 광열수도비	거주지역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323** (.323**, _)	.102** (.102**, _)	-.153** (-.153**, _)	-.080** (-.080**, _)	-	-
삶의 만족도	.348** (.096**, .252**)	.185** (.105**, .080**)	-.151** (-.032, -.119**)	-.148** (-.086**, -.062**)	.778** (.778**, _)	-
내재적 자존감	.234** (_ , .234**)	.074** (_ , .074**)	-.111** (_ , -.111**)	-.058** (_ , .058**)	.724** (.724**, _)	-
상대적 자존감	.226** (_ , .226**)	.071** (_ , .071**)	-.107** (_ , -.107**)	-.056** (_ , -.056**)	.698** (.698**, _)	-
건강 만족도	.193** (_ , .193**)	.102** (_ , .102**)	-.084** (_ , -.084**)	-.082** (_ , -.082**)	.432** (_ , .432**)	.555** (.555**, _)
가족수입만 족도	.203** (_ , .203**)	.108** (_ , .108**)	-.088** (_ , -.088**)	-.086** (_ , -.086**)	.454** (_ , .454**)	.584** (.584**, _)
주거환경만 족도	.194** (_ , .194**)	.103** (_ , .103**)	-.084** (_ , -.084**)	-.082** (_ , -.082**)	.433** (_ , .433**)	.557** (.557**, _)
가족관계만 족도	.192** (_ , .192**)	.102** (_ , .102**)	-.083** (_ , -.083**)	-.082** (_ , -.082**)	.430** (_ , .430**)	.553** (.553**, _)
직업 만족도	.176** (_ , .176**)	.093** (_ , .093**)	-.076** (_ , -.076**)	-.075** (_ , -.075**)	.394** (_ , .394**)	.506** (.506**, _)
사회적친분 관계만족도	.207** (_ , .207**)	.110** (_ , .110**)	-.089** (_ , -.089**)	-.088** (_ , -.088**)	.462** (_ , .462**)	.594** (.594**, _)
여가생활만 족도	.197** (_ , .197**)	.105** (_ , .105**)	-.085** (_ , -.085**)	-.084** (_ , -.084**)	.441** (_ , .441**)	.567** (.567**, _)

**p<.01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주거의 경제적·지역적 특성인 주택가격, 주거면적, 광열수도비의 비중과 거주지역은 자체 변수의 특성으로 인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주거의 특성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또 다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광열수도비의 지출비중은 주거특성 변수들 중에서 주택가격 다음으로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크게 부(-)의 영향(-.032, -.11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노인주거복지수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주거특성 중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인 주택가격, 주거면적, 광열수도비 비중과 거주지역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거특성 변수인 주택가격, 주거면적, 광열수도비와 거주지역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또한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주택가격과 주거면적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정(+)의 상관관계 및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광열수도비는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경로분석결과를 보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나,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광열수도비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유의한 높은 수준의 부(-)의 영향(-.032, -.119**)을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거주지역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분석결과에 의하면, 주거의 지역적 특성인 거주지역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는 다른 주거특성 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의 영향을 미쳤지만, 삶의 만족도에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086**, -.062**)을 미침으로써 광열수도비의 총효과(-.151**)와 거의 비슷한 수준(-.148**)의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는 높은 정(+)의 직접효과를 나타낸 반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낮은 것으로 볼 때, 과시적 소비의 배반효과와도 관련시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55][56], 자산축적을 통한 경제적 안정감에서 오는 심리·정서적 요인에 의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면 자산효과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29].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도심지역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34][51]와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환경 합치이론 등의 노인주거관련이론에 비춰볼 때,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악화, 사회적·경제적 능력 및 역할의 상실과 가족·친구 및 주변 지인들로부터의 소외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거의 안정성 관점[11]에서 도심지역보다 비도심지역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다양한 심리·정서적 주거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거의 경제적·지역적 특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여러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저소득층의 경우는 주택 자가 보유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거의 경제적 특성에 기인하는 주거빈곤 및 주거불평등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적이고 장기적인 주거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정책의 주요 대상인 노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유가 아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불평등 완화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대안을 위해 주거환경과 실질적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빈곤 대책에 관한 연구도 보다 구체적이고 폭 넓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정서적 요인의 개선은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정책변수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이주, “노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5호, pp.129-142, 2008.
- [2] 김철수, 유성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pp.51-73, 2009.
- [3] 정영해, 조유향, “한국 전·후기 노인의 삶의 질 관련요인과 성별 차이,” 농촌의학·지역보건, 제39권, 제3호, pp.176-186, 2014.
- [4]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2016.
-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2014.

- [6] S. Tuljapurkar, N. Ogawa, and A. H. Gauthier, *Ageing in Advanced Industrial States*,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B.V. 2010.
- [7] OECD, *Health at a Glance 2015*, Paris: OECD Publishing. 2015.
- [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65948.html#csidxa14cb8b06adfee8a9a727a013954eab, 2018. 2. 26.
- [9] 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 2015.
- [10] 김영주, "Aging in Place 활성화를 위한 노인가구의 주택개조실태 및 요구조사," 생활과학논집, 제23권, pp.13-35, 2006.
- [11] 김현중, 강동우, 이성우, "최저주거기준으로 측정된 농촌지역 고령자의 주거수준 변화와 지역 간 격차 1995-2005," 농촌계획, 제16권, 제1호, pp.49-62, 2010.
- [12] 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32권, 제4호, pp.1041-1061, 2012.
- [13] 김윤옥, 박병남, 김갑열, "주거환경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부동산학보, 제64권, pp.227-240, 2016.
- [14] 주거학연구회,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2013.
- [15] 최성재, 노인주택 개발과 노인주택 정책.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택정책 및 개발방향 설정,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경춘사, 1993.
- [16] 임선미, 이보영, "중장년층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1권, 제1호, pp.49-63, 2016.
- [17] L. Sousa and S. Lyubomirsky, *Life satisfaction*. In J. Worell. (Ed.), *Encyclopedia of women and gender: Sex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 impact of society on gender*, Vol.2, pp.667-676, San Diego, CA: Academic Press. 2001.
- [18] 강민규, 김준형, "주택에 의한 자산효과가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논문집, pp.931-949, 2009.
- [19] 허문중, "주택가격 변동의 소비에 대한 자산효과 추정 및 시사점," 부동산포커스, pp.54-62, 2013.
- [20] K. E. Case, J. M. Quigley, and R. J. Shiller, "Comparing wealth effects: The stock market versus the housing market," *NBER Working Paper*, p.8606. 2001.
- [21] J. Y. Campbell and J. F. Cocco, "How do house prices affect consumption? Evidence from micro dat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54, pp.591-621, 2007.
- [22] S. M. McKernan and M. Sherraden, *Asset Building And Low-Income Familie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2008.
- [23] 천현숙, 이재춘, 이길제, "가구원수별 주거사용면적 차이와 시사점," 국토정책Brief, 제592권, 국토연구원, 2016.
- [24] 김현경, "에너지 빈곤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 Issue & Focus, 제281권, pp.1-8, 2015.
- [25] 홍경숙, 전대성, "생태체계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7권, 제2호, pp.265-297, 2010.
- [26] 정재훈, "주거환경이 도시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1권, 제60호, pp.121-128, 2012.
- [27] 도나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요인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8] J. Rodin and Z. Langer, "Aging labels: The decline of control and the full of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Issues*, Vol.36, No.2, pp.12-29, 1980.
- [29]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ition)*, New York: Haper and Row Publishers, 1970.
- [30] 서인균, 이연실,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환경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2호, pp.371-399, 2014.
- [31] 권치영, 김선용, 엄중철, 이홍직, “일자리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7권, 제2호, pp.427-443, 2007.
- [32] 김소향, 이신숙,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1호, pp.309-327, 2009.
- [33] 윤명숙, 이묘숙, “노인의 경제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2권, 제2호, pp.397-413, 2012.
- [34] 김명숙, 고종욱,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3권, 제6호, pp.246-259, 2013.
- [35] 이철림,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료복지연구, 제8권, 제1호, pp.51-68, 2016.
- [36] 황희원, 박오장, “노인의 동거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과학논집, 제12권, 제1호, pp.71-85, 2007
- [37] G. W. Evans, N. M. Wells, E. Chan, and H. Saltzman, “Hous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8, No.3, pp.526-530, 2000.
- [38] 김소희, “지역사회거주 노인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1호, pp.117-142, 2009.
- [39] 최말옥, 문유석,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5권, 제1호, pp.277-297, 2011.
- [40] J. R. Dunn, “Housing and inequalities in health: a study of socioeconomic dimensions of housing and self reported health from a survey of Vancouver residents,” *Journal of Epidemiol Community Health*, Vol.56, pp.671-681, 2002.
- [41] 최병숙, 박정아, “한국복지패널연구 자료를 기초로 주거환경과 우울감 및 자존감과의 관계 분석,”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23권, 제5호, pp.75-86, 2012.
- [42] 김봉임,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와 자가간호에 관한 비교 연구,” 재활간호학회지, 제7권, 제2호, pp.140-148, 2004.
- [43] M. N. Zhao, The Effects of Chemyon (Social-Face) Sensitivity, Vanity and Conspicuous Consumption on Brand Attitude toward Fashion Luxury Good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5.
- [44] 박은아, *자기존중감, 사회적 인정욕구, 돈에 대한 태도에 따른 현실적 소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45] 장서윤, 하규수, “주거용부동산의 거주유형에 따른 베블런효과에 관한 연구: 과소비성향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6호, pp.107-119, 2015.
- [46] V. Satir, *Peoplemaking*, London: Souvenir Press, 1972.
- [47] 김현순, 김병석,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27권, 제1호, pp.23-37, 2007.
- [48] 이수희, *사회 환경적 요인이 노인의 심리상태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49]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저 자 소 개

임 광 빈(Kwang-Bin Lim)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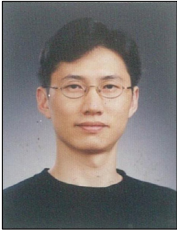


- 1981년 2월 : 고려대 영어영문학사
- 1985년 9월 : 고려대 경제학 석사
- 2016년 2월 : 고려대 사회복지박사수료

- 2001년 8월 ~ 현재 : (주)콘디오스 대표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주거복지

강 동 훈(Dong-Hoon Kang)

정회원



- 2000년 2월 : 중앙대 사회복지학사
- 2004년 2월 : 서울대 사회복지학석사
- 2018년 2월 : 고려대 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10월 ~ 현재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장
- <관심분야> : 노인복지, 불평등